

마태복음 12:1-21절,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12장은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기성종교인들과 충돌하며 배척을 받는 내용입니다. 분쟁의 상대는 바리새인(2, 14, 24, 38)과 서기관(38)들입니다. 이를 분량으로 인해 두 문단(1-21, 22-50)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앞 문단의 쟁점은 도표에 나타난 대로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기성종교인들의 비난에 대해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8) 하고 답변하십니다. "안식일 성수와 그리스도인"은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단원(1-8) 안식일과 자비
둘째 단원(9-21) 안식일과 선행

첫째 단원(1-8) 안식일과 자비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1).

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2)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윤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남의 밀을 잘라먹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즉 범하느냐 에 있었던 것입니다.

② 이런 기사(記事)를 대할 때에 이를 해설하려고 직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를 기록케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주의 마음"(고전 2:16)을 아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답답하시고 한심스러우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안식일"을 주신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 계명으로 백성들을 결박하여,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 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③ 이 대목의 결론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7-8)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9:17) 하신 말씀대로 획기적이고도 신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안주해 있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④ 첫째, 하나님은 "자비(慈悲)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의 뜻입니다. 9:13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仁愛)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거듭 인용하시는 것만 보아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 안식일" 등은 열심히 지키노라하면서 보다 중요한 "자비, 긍휼, 인애"는 버렸다는 데 형식적인 종교의 맹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삭을 잘라먹었겠는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는 못할망정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 정신에 합한 것이란 말인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① 둘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8) 하신 뜻입니다. 이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 계명도 율법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제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갈 3:24),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율법의 전수(傳授)자인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고별설교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 5:15) 하고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과 결부시켜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느냐 하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가 "지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파괴된 "안식"을 누가 회복시켜줄 것인가에 있음을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회복된단 말인가?

② 성경은 출애굽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을 "안식을 주셨다"(수 22:4, 21:44) 하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출 2:23) 노예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던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히 4:8-9) 하고 가나안의 안식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안식) 하리라"(28).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의 뜻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행 20:7)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였던 것입니다.

③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는 "주일"이 십계명의 하나인 계명이 아니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하신 잔치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6)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부러운 듯이 자랑(막 13:1)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참 성전이신 주님을 모셨으면서도 이를 몰라보고 목석으로 건축한 성전을 자랑하다니,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건만 이를 배척하면서 안식일을 성수(聖守)하는 양 꾀논하고 있다니!

④ 이제는 "안식일" 계명이,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주의 날"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안식일과 혼동하여 이를 형벌의 두려움으로 지키는 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말인가?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있기 때문이요, 저들에게 복음보다는 윤리를 더 많이 말해준 설교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둘째 단원(9-21) 안식일과 선행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9-10).

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11-13) 합니다.

②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는 우연한 일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를 인하여 촉발된 논쟁을 관찰해보면 이렇게 하심은 의문(儀文)이라는 껍질을 벗겨버리고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교훈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12년을 혈투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눅 13:16) 하십니다. 38년이던 병자(요 5:5)에게 안식이 있었겠는가? 주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의문(儀文)이 줄 수 없었던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즉 창세기 3장에서 깨졌던 안식이 누구에 의하여 회복되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③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14) 하는 모의가 시작됨을 봅니다. 이는 저들이 사탄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이에 대응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16) 경계하심을 줍니다. 언제까지 "나타내지 말아야" 하는가? 17-21절은 이사야 42:1-4절의 자유로운 인용인데, "심판"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20, 18) 하십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을 지향(指向)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깨치실 때까지로 보아야만 합니다.

④ 또한 "이방"(異邦)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방에 알게,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18, 21)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게", 즉 믿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나타내지 말라", 즉 주님은 은익(隱匿)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병화산상의 경험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17:9)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감추었던 비밀"(골 1:26, 엡 3:9)로 붙이시려는 뜻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병을 고치는 분으로 선전되기 보다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20상)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죄인의 상태는 "상한 갈대, 꺼져 가는 심지"와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원계획 전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오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는 진정 "꺼져 가는 등불"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선언하시면서도,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왕상 11:11-13)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지파를 "한 등불"(왕상 11:36, 15:4)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⑥ 구속사(救贖史)란 "상한 갈대, 꺼져 가는 등불"과 같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는 자랑할만한 족보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족보입니다. 만일 한 등불을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마태복음 12:22-50, 이미 입한 하나님의 나라

요절 :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2장은 전체가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앞 문단(1-21)의 중심점이 "안식일"이었다면, 본 문단(22-50)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28)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를 정복하고야 세워진다(첫째 단원)는 것파, 요나의 표적(둘 때 단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 진다는 것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요 자매(셋째 단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22-37) 강한 자를 정복하고 세워지는 하나님나라
둘째 단원(38-45) 더 이상 없는 최대의 표적
셋째 단원(46-50) 하나님나라 형제와 자매들

첫째 단원(22-37) 강한 자를 정복하고 세워지는 하나님나라

"그 때에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22).

①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24-37절을 말씀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단순한 병 고친 사건이 아니라, 표적(表迹)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한 표적인가? 그 대답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명백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②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신 그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승복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24)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26) 하고 반박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28)와, 저의 나라"(26), 즉 사탄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건설은, 두 나라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게 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③ 이 점이 29-32절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29)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간"이란 소유를 말하는데, 죄 값에 팔린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구절을 보면 주님을 "더 강한 자"(눅 11:22)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히 2:14)에서 오신 것입니다.

④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은, 영적 전쟁은 "성령과 악령"의 싸움임을 나타냅니다. 영적 논리로 하면 두 나라, 두 진영, 두 임금이 있을 뿐입니다. 그

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소유를 쟁탈하려는 "분쟁"(25-26)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 분쟁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창 3:15) 하실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10:34)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입니다. 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두 진영 중 어느 한 편에 속해있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두 나라에 소속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30). 그렇다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24)이라고 배척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진영에 속한 자들인가 하는 것은 분명해 지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34) 하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 즉 "뱀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가공스런 일인가?

⑥ 그렇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꾀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꾀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31-32) 하십니다. 주님을 거역한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꾀방하고 거역한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구속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구별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의 사역은 죄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고난의 사역이지만, 성령의 사역은 이를 적용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를 꾀방하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너희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과, 거듭남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실 성령을 꾀방하거나 거역하지는 말아라". 한이 없으신 주님의 겸비를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고, 주님은 그를 사하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38-45) 더 이상 없는 최대의 표적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38).

① 16:1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고전 1:22)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표적에 몰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39상) 하고,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16: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악하다" 한 것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24)고 배척을 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음란"하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표적을 찾아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즉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②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39하)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40) 하신, 장사한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최대요,

최종이라 할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해서도 믿지를 못한다면 그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라는 말씀 속에 함의(含意) 되어 있습니다.

③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는, "요나가 니스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눅 11:30) 하십니다. 이는 전도자에게 중요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니스웨 사람들을 그토록 회개시킬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가? "요나가 니스웨 사람에게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이 표적이 니스웨를 회개케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회개케 할 동기가 무엇인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행한 설교의 결론을,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30-31)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증거해야 할 이보다 더 중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한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④ 그러므로, ㉠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41하)고 말씀하십니다. ㉡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42하) 하십니다. ㉢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6)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더 큰" 것인가? "표적"이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진리의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인,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보다 더 큰 복음진리를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갈 6:14)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실로 성경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할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표적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다

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43상) 하십니다. 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43중), 즉 들어갈 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다"(44)고 말씀합니다. ㉣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45상) 합니다.

② 이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요약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은 우상숭배(수 24:2)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성민(聖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수리하고 소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언약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왕상 18:21) 하다가,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점을 베드로 사도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벧후 2:21) 하고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46-50) 하나님의 나라 형제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46).

① 동생들이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누이들"(13:55)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는 것은 좋은 뜻에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막 3:21)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12장)에서는 "세례 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친과 동생들" 모두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②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손을 내 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48-49) 하십니다. 이는 육친(肉親)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50)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③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윤리에 국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12장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28)에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태복음과, 신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6:10) 하신, "하나님 나라건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건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에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요, 동일 선상(線上)에 있는 역군들입니다.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란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가족)이라"(엡 2:19).

④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귀신은 쫓겨나고, 잔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8:12), 잔치자리에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21) 한대로,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요나의 표적", 즉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 지는 것입니다.